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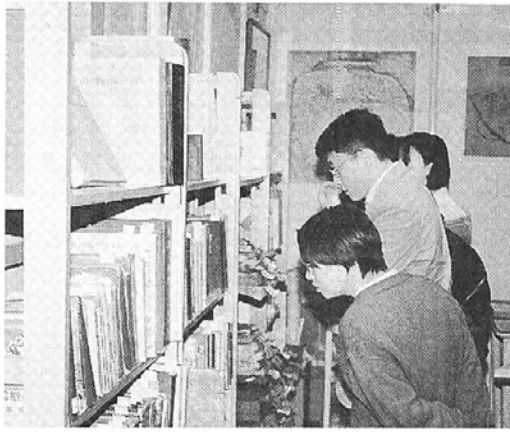
“불서는 지혜의 寶庫”

생일·결혼 선물은 책으로...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4월 12~18일 '도서관 주간'

지난 4월 12~18일과 23일은 각각 도서관주간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었다. 도서관주간은 제32회를 맞았고,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출판협회(IPA)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선포됐다.

스페인 북동지역인 카탈로니아에서 한국의 책과 꽃 한송이를 선물하는 풍습에서 유래된 '책의 날'에 맞춰 국내에서도 문학서적과 장미꽃을 무상 배부하는 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유포의 공덕이 칠보로



◇ '책의 날'을 기념해 한국고서협회(회장 여승주) 주최로 지난 13~16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제3회 서울 국제고서박람회(이하 고서박)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의 고서 2만6천여권이 전시됐다.

기복 탈피·새 신행운동으로 바람직한 사찰도서관 운영 '불서 읽기'에 한몫

세상을 장악하는 것 보다 '월동하다'고 누누히 강조하셨다. 요즘 교계에서는 법보시 법공양 등을 통해 '책 선물' 풍토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불서 읽기 운동'을 펼쳐나가는 여인이 일고 있다.

49재나 천도재 등 각종 불교 의식에서의 법공양이나 불교 출판계의 법보시 관행을 잘 활용한다면 '불서 선물' 풍토의 조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확산시켜 결혼 회갑 생일

불만하다. 정부에서는 전국 4천여개에 달하는 문고로 점차 양성화해 오는 2001년까지 6천 개 이상을 확충하고 해당문고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장서 1천권 이상과 10평 이상의 서고 및 6석 정도의 열람석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도서관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을문고, 도서관대점 등의 확산에 발맞춰 불교계도 중 단차원의 사찰도서관 지원과 불서 읽기운동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

충남대 이광래교수(철학과)의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는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원효 해원 법장의 기신삼소(起信三所)를 분석·종합해 여래장(如來藏)설을 조명한 연구서다. 여래장사상이란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여래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수행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원효를 토대로 불교의 심성

원효·해원·법장의 기신삼소 분석서

론을 총결하고 있는 이교수는 원효의 심성이 단순한 유심론의 체계가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깨달음을 이룬정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한다. 원효는 일심(一心)의 본체를 여래장으로 표현하고 여래장을 생사

김영우와 함께하는 전생여행

"전생은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할 수도 있다. 이유없는 질병과 정서 장애는 많은 경우 전생을 그 원인이었고,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

이 놀라운 말은 접술가가 아닌, 과학과 현대의학의 지식으로 무장한 한 정신과 전문의의 주장이다. <김영우와 함께하는 전생여행>은 국내 최초로 전생 기억 유도에 성

"질병은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

공한 김영우 신경정신과 원장의 충격적인 보고서다. 경희대 의대와 인제대 의대 의과교수인 김영우원장은 국내에 몇 안되는 최연소법원의 전문기로서 국내 최초로 최첨단 기술중의 하나인 '전생여행(前世旅行)요법'을 시행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의료인이다.

부록으로 전생여행을 위한 이완상태로 이끄는 김영우의 '최면유도 테이프'가 들어있다. <정신세계사 1만원>

'책의 날'에 만나본 독서관

시설안전기술공단 조태선 감사실장

"불법(佛法)과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책입니다. 책을 쌓아두면 언젠가는 읽게 될 것이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불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선 가르침을 주기에 '나무보다는 숲속을 보게하는' 관조(觀照)의 삶을 살게 합니다."

집안에 온통 책을 쌓아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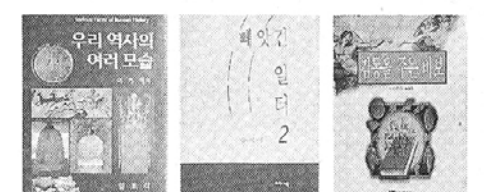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일상의 교과서"

주말이면 사찰 찾아 목욕도 심고 마음정화

사는(장서 3천여권 중 불서 5백여권),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관 조태선씨(53·시설안전기술공단 감사실장)는 한달에 책을 수십권씩 주문하는 조계사열 책방 '여시아문'의 단골 손님. 바쁜 직장생활로 책방을 자주 찾지 못해 통신판매(도서회원제/전화: 737-0695)를 자주 이용한다.

그는 "거북을 보고 숲을 봤다고 하지 마라. 지혜를 얻어 자신의 진정한 스승이 되라"는 <법구경>의 가르침대로 욕심과 집착으로 가려있는 편협



새로운 책...

▲우리의 역사를 여러 모습(이 기백 지)=우리나라 역사를 사민, 문자·인해, 문화, 미술, 정치제도 등 23개 분야별로 재미있고도 실감나게 정리했다. 많은 자료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학생에서부터 어른까지 부담없이 역사를 공부하게 했다. (일조각 9천원)

▲책 읽기 일터 2(진관스님 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의 새 시집. 지난해 6월 조계사에서 농성했던 한국통신 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겪은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시어를 엮었다. (여래회 법보시)

▲감동 주는 비보(김갑수 편지)=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한탄쯤 바보가 되어 보는 것도 좋다. 삶의 지혜를 주는 짧은 이야기 속에 문득문득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칠화하는 바보' 시리즈 제5권. (보성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2	기도	일타	효림
3	영원한 자유의 길	심철	장경각
4	능엄경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5	달마에서 경허까지	박영규	정신세계사
6	업보	해범	밀알
7	삶에서 깨어나기	틱나한	장경각
8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비	민족사
9	무소유	범정	법우사
10	만화북보는 불교이야기	김영민·최병호	고려원미디어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한·중 불교문화교류사>이다. 황유복·진경부 교수가 함께 쓰고 권오철 선생이 번역 출간하여 한국과 중국의 불교 전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고무된 일이다.

초기 중국불교는 전역불교에 관심을 쏟아 구역·신역 번역사업이 전개되어 범어불전을 중국어 불전으로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수백년의 역사가 접목되었다. 이 불경번역이 기초되어 중국 불교가 발전되게 되며 여러 형태의 교상관성이 수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종파불교의 체계를 조직하게 된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가 전래될 때 비단 종교만이 오롯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전반이 총동원되는 것이다. 예술, 조각, 음악, 공예, 건축, 기명, 복식등



목정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양국불교 상호보완 관계 조명 전래와 수용과정 상세히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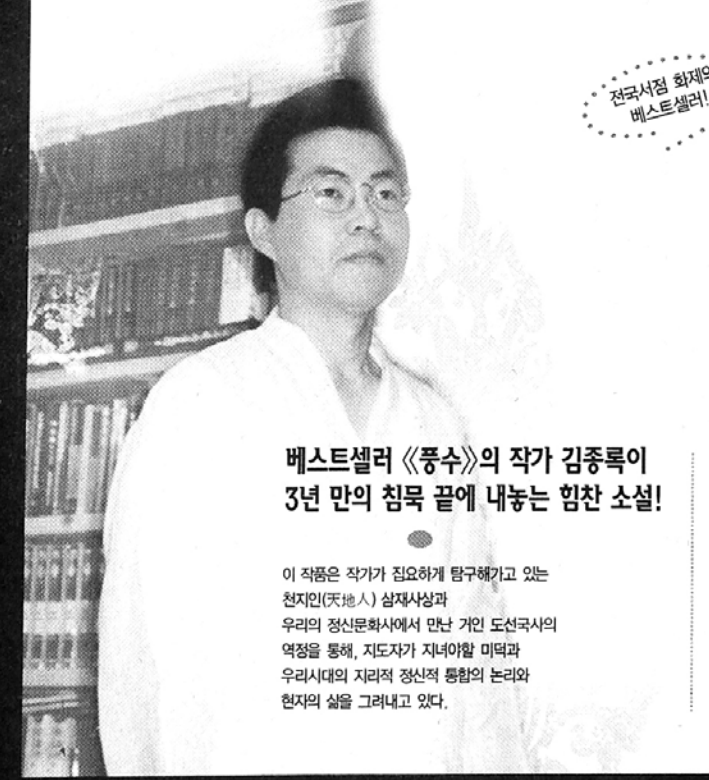
일체의 종교문화가 함께 전승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당의 불교는 교학체계의 불교가 아니라, 수·당의 불교문화가 만개함을 밝혔다.

한국도 이러한 문화전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시대에도 중국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발전된 것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전진시대 이후부터 중국은 불교교류를 시작하여 양국은 서로 불교적 문화체계를 보완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완이란 말은 중국불교를 전래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승려들이 중국불교에 기여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문화는 수준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독자적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력을 가졌기 때문에 보완하였다고 하는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김종록 장편소설 제왕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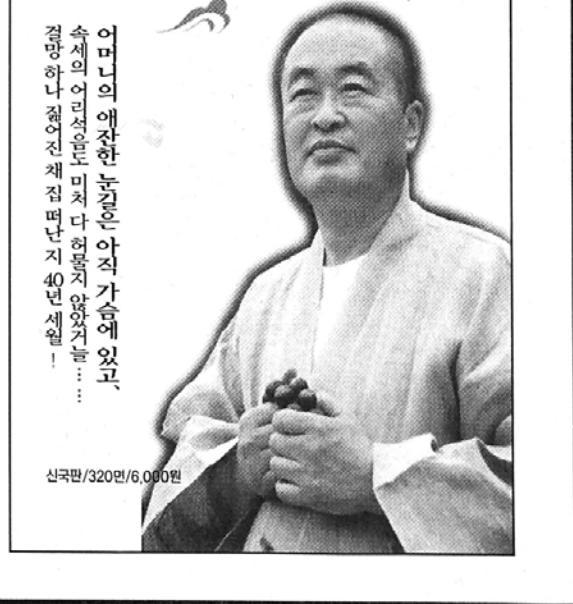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호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최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도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불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당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려냈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신국판/328쪽/6,800원

삼중스님 에세이

결망에서 배운 인생



이러니의 애잔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치지 않다. 허물지 않았거늘... 결망 하나 짙어진 제 짙어진 40년 세월!

신국판/320면/6,000원